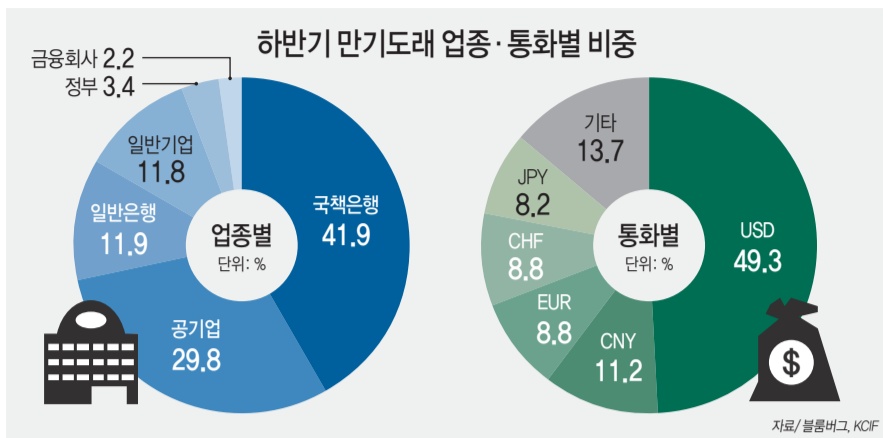


# 韓경제 복병 떠오른 '138억弗 외화채권'... 상환 vs 차환?

(올 연말 만기도래)

상반기 보다 20억달러 많아  
비중 1위 국책은행 41.9%  
11월 美 중간선거·금리상승에  
조기차환 수요 증가 가능성



# 국내 증견 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 A 씨. 올해 그의 가장 큰 고민은 G2(미국·중국) 무역전쟁과 법인세, 금리 등 3중 세트다. 원화값이 떨어지면서 수출 경쟁력은 좋아졌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확산 양상을 보이면서 수출길이 좁아질까 걱정이다. A씨는 "미국과 중국 모두 오는 7월 6일을 기점으로 340억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1차). 갈수록 대외 환경은 악화하고 있다. 법인세,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에 허리를 졸라매야 할 처지"며 한숨을 내 쉬었다.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할 수도 없다. 투자를 미뤘다면 하루하루 달라지는 환경 변화에 도태될 수밖에 없어서다. 투자하려면 당장 돈을 빌려야 한다. 그러나 자금 조달 비용이 걱정이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최근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산금리 상승으로 신규 자금 조달이 걱정이다"고 말했다.

하반기 국내 기관들이 138억달러에 달하는 외화 채권 만기를 무사히 넘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은 "현재의 전망대로 경기가 움직인다면 곧(soon) 다음 단계를 밟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6월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세계 주요국도 잇따라 '돈줄 죄기'에 나서서 모양새다.  
G2의 무역분쟁이 첨예한 가운데 중국의 역대 채권 디폴트 증가, 위안화 약세 또한 아시아 채권시장에 부담요인이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한국계 외화채권 만기 도래액은 138억 달러다.

상반기 118억달러 보다 20억달러가 많다.  
외화 채권 만기 도래액은 지난해 1분기 185억달러를 찍은 후 2분기 125억달러, 올해 1분기 118억달러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관별 비중은 국책은행의 빛이 41.9%(58억달러)로 가장 많다. 이어 공기업(29.8%, 41억 달러), 일반은행(11.9%, 16억 달러), 일반기업(10.8, 15억 달러) 순이다.  
통화별로는 달러화가 49.3%(68억 달러)가 가장 많다. 위안화 11.2%(98억 위안), 유로화 8.8%(10억 유로), 스위스프랑화 8.8%(11억 프랑), 엔화 8.2%(1197억엔) 등도 여타 통화 만기도 적잖다.  
국제금융센터 황재철 연구원은 "4분기

에 81억달러 규모의 만기가 집중돼 있다. 하지만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와 금리 상승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조기차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외화채권 시장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물 차환수요도 부담 요인이다.  
시장 금리도 상승세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은 올 연 말 미국 국채금리가 3.1%(9월 3.04%, 12월 3.09%, 9개 해외 IB 전망치 평균)에 달할 것으로 본다. 내년 3월에는 3.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 투자등급 달러채 스프레드는 지난 2월초 109bp(1bp=0.01%포인트)를 저점으로 반등, 최근 148bp까지 상승했다. 글로벌 투자자금도 아시아 신흥국 채권펀드(hardcurrency)에서 자금을 빼내고(2월부터 유출중) 있다.  
기업들은 걱정이다. 금리가 오르면 조달 비용(가산금리)이 늘 수밖에 없어서다. 가산금리는 신흥국 불안, 달러 강세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다.  
국내 A은행 한 관계자는 "미국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그동안 미국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물 가산금리 축소 폭이 컸고 유동성도 풍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물 차익실현 욕구가 증가하고 투자수요도 둔

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수요도 위축되고 있다.  
국내 IB업계 한 관계자는 "연준의 금리 인상과 미국 단기 국채(T-bill) 발행 확대, 세계개편 등으로 달러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조달비용 상승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외불안에 따른 변동성 확대로 신흥국 채권 투자수요가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3개월 달러 리보(LIBOR)는 2.34%로 지난해 말 대비 65bp 급등했다. 이는 채권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또는 환헤지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는 의미다.  
그는 "다만 한국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레딧(신용)이 우수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가산금리 상승폭이 15bp 내외로 제한돼 있다"면서 "다만 북미 간 핵협상, 추가 정상회담 등의 경과에 따라 발행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매우 견고하다는 인식도 투자자들 사이에 퍼져있다.  
무디스는 "한국의 거대하고 다각화된 경제는 국제적 충격에도 계속 탄력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한국의 국가재정이 건실하게 유지되고, 지속적 구조 개혁이 행에 따라 더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문호기자 kmh@metroseoul.co.kr

## 코트라, '美 P3 시장 공략법' 제시

금융·건설·운영관리 기업 등 동반진출 컨소시엄 구성 필요  
코트라(KOTRA)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1조5000억달러 공공인프라 시장 진출방안을 제시했다.  
2일 코트라(KOTRA)가 발간한 '미국의 P3(공공민간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인프라 시장 환경과 진출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숙원사업인 '공공인프라 1.5조 달러 투자'를 위해 미국 P3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유럽·호주·일본 등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사업수행경험 확보, 금융조달 등을 포괄한 종합적인 패키지 전략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비용의 최대 20%는 연방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자금을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체 조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따라서 향후 민간 자본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미국 시장 사업수행 경험을 쌓기 위해 현지기업과 공동 프로젝트 참여, 하도급 계약,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중소형 프로젝트부터 차근차근 진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공계약에서 각종 혜택을 받는 소수인종, 여성, 제대군인이 운영하는 일명 '8(a)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도 검토해야 한다.  
코트라는 우리 기업이 자본력, 기술력, 사업수행 경험 등에서 미국이나 다른 경쟁국 대비 열위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 건설·엔지니어링, 기자재 공급, 운영관리, 시스템 통합 기업 등이 동시에 참여하는 동반 진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외에도 주차장 건설, 고속도로 휴게소 건설 등 틈새 시장과 학교, 병원과 같은 사회 인프라 프로젝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책금융기관은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 우리기업과 연계한 미국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원석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미 정부의 인프라 정책이 입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성장할 P3시장에 우리 기업 진출은 늦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연우 기자 yw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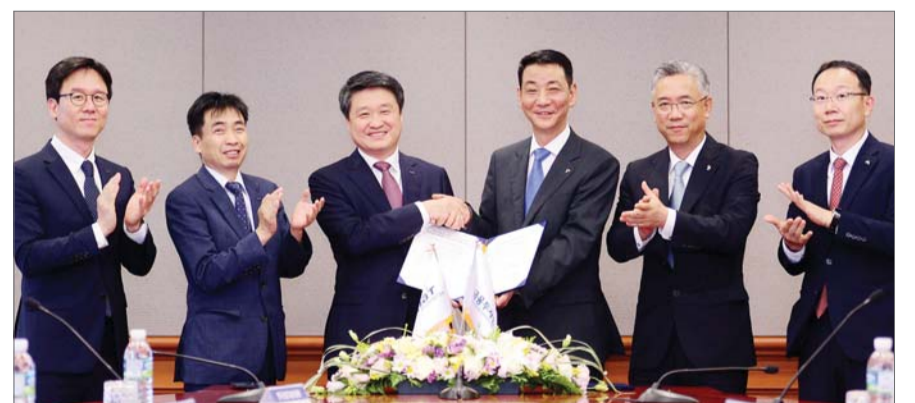


무협 해외 TV홍소평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2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8 해외홍소평 초청 수출상담회'에 참석한 총 11개국 33개 바이어들이 국내 수출기업과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금투협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지원"

### 산업기술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비상장 혁신형 기업의 기술분석 지원 및 자본 시장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산업기술진흥원은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혁신형 기업에 대한 기술분석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금투협은 '월드클래스 300' 등 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혁신형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 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권용원 금투협 회장은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한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비대칭 해소가 필수"라며 "혁신기업들의 가치가 시장에서 잘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 가치(Valuation)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병구 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단장, 김동균 산업기술진흥원 일자리전략본부장, 김학도 산업기술진흥원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김철배 금융투자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 이창환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본부장.  
/금융투자협회

김학도 산업기술진흥원장은 "기술사업화 역량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을 분석 지원함에 따라, 기술투자시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어 신산업 투자 촉진과 혁신분야 일자리 확산의 계기가 기대된다"며 "모험자본이 혁신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토대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신뢰성 높은 '기술분석보고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결식 직후 양 기관은 실질적인 업무협력 및 성장·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5社) 대표, 증권사(2社) 관련 전문가, 기술보증기금, 학계 등을 초청해 ▲비상장혁신기업의 도전을 위한 플랫폼 'K-OTC' ▲'기술분석보고서'를 통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지원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